군무원 국어 기출 분석(9급, 7급)

〈9급〉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비율
		1차	2차							
문학	6	5	7	3	5	4	6	4	40	20%
문법	2	4	4	4	1	2	2	2	21	10.5%
비문학	5	2	2	4	5	7	7	7	39	19.5%
어문 규정	5	10	9	4	6	5	6	5	50	25%
어휘	1		2	1	3	1		1	9	4.5%
관용어, 속담	(1)				1		1	1	3	1.5%
한자어, 한자	1		1	2	2	3	1	1	11	5.5%
한자 성어	1	1		1	1	2	1	1	8	4%
고전문법	2	2		1			1		6	3%
어법, 생활 국어	2	1		5	1	1		3	13	6.5%
계	25	25	25	25	25	25	25	25	200	100%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지엽적이고 지식형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에 중점을 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과 비교하면 문법을 비롯하여 문학 등 여러 국어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론을 익혔다면 문제에 이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출제 범위도 과거의 군무원 국어 시험과 고려한다면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본다. 군무원 시험의 특성상 문법(문법, 어문규정, 어법)의 비중이 높은 것은 맞다. 그러나 나머지 단원인 비문학, 한자성어, 어휘 등도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부터 시험이 공개된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수험생은 모든 영역의 공부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이번 시험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비문학이다. 계속 비문학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독해 영역의 공부는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없다. 최소 6개월 이상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한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직접적인 한자 문제는 1개이지만 한자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은 문학과 비문학의 이해가 더 쉬웠을 것이다. 적절한 수준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이다.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라면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야 한다. 1년 공부를 했다면 80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본다.

〈7급〉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비율
문학	5	8	5	7	7	32	25.6%
문법	4		5	3	3	15	12%
비문학	4	3	8	6	4	25	20%
어문 규정	3	8	1	5	6	23	18.4%
어휘	1	3	1	1		6	4.8%
관용어, 속담	1	1			1	3	2.4%
한자어, 한자	4	1	2	2	1	10	8%
한자 성어		1	1	1	1	4	3.2%
고전문법							0%
어법, 생활 국어	3		2		2	7	5.6%
계	25	25	25	25	25	125	100%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지엽적이고 지식형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에 중점을 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과 비교하면 문법을 비롯하여 문학 등 여러 국어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론을 익혔다면 문제에 이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출제 범위도 과거의 군무원 국어 시험과 고려한다면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본다. 군무원 시험의 특성상 문법(문법, 어문규정, 어법)의 비중이 높은 것은 맞다. 그러나 나머지 단원인 비문학, 한자성어 등도 골고루 출제되었다. 9급 시험과 비교하면 직접 어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들 곳곳에 어휘를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어의 여러 단원에서 골고루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은 2020년부터 시험이 공개된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수험생은 모든 영역의 공부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이번 시험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비문학이다. 계속 비문학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독해 영역의 공부는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없다. 최소 6개월 이상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한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직접적인 한자 문제는 1개이지만 한자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은 문학과 비문학의 이해가 더 쉬웠을 것이다. 최종 평가는 9급과 같다. 적절한 수준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이다.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라면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야 한다. 1년 공부를 했다면 80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블로그: blog.naver.com/mjh721
• 유튜브: "정호는국어왕" 검색
• 하이클래스군무원: army.daebanggosi.com

군무원 국어 시험 최근 5개년(2020~2024) 중요 단원 출제 분석표(9급+7급)

	2020	2021	2022
문법	• 문장의 짜임 • 사동사와 피동사 • 품사 구별하기 • 관형격 조사 '의' • 단어의 구조 • 자음 분류 • 합성어의 종류		• 파생어 구별하기 • 높임법 • 관형사 구별하기 • 문장의 짜임 • 품사 중 수사 찾기 • 품사의 종류 • 능동과 피동 표현
어휘 (고유어, 순화어)	• 순화어 '스크린 도어' • 고유어 '살별'('별' 관련 우리말)	• 고유어 '빗먹다' • 순화어 '주말'	• '보다'의 의미 • 고유어 '동냥' • 고유어 '늡늡하다'
문학 이론, 문학사	• 비유 중에서 은유의 종류	• 가사 '상춘곡'의 특징	• 비유 중에서 대유법의 종류
현대문학	• 김유정의 소설 '산골 나그네' • 김남조의 현대시 '정념의 기' • 선우휘의 소설 '불꽃'	• 황석영의 소설 '삼포 가는 길' • 조지훈의 현대시 '완화삼' • 김기택의 현대시 '우주인' • 김춘수의 현대시 '꽃을 위한 서시' • 김수영의 현대시 '폭포' • 박완서의 소설 '엄마의 말뚝'	• 김광섭의 현대시 '해바라기' • 오상원의 소설 '유예' • 김수영의 현대시 '사령' • 김영랑의 현대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 오세영의 현대시 '열매' • 최인훈의 소설 '광장'
고전문학	• 김시습의 소설 '만복사저포기'	• 정극인의 가사 '상춘곡' • 정철의 가사 '관동별곡' • 고려가요 '동동'	• 정철의 가사 '사미인곡' • 박지원의 수필 '일야구도하기'

	2023	2024
문법	• '쓰다'의 품사 구별하기 • '-ㄹ텐데'의 형태소 분석 • 한국어 발음의 특성 • 상대높임의 체계 • 접미사 '대'의 특성	• 형태소의 특징 • 부사의 특징과 사례 • 음운 변동 • 통사적 합성어 찾기 • 능동과 피동 표현
어휘 (고유어, 순화어)	• '칠칠하다'의 쓰임	• '성마르다', '돈바르다', '살천스럽다', '암상스럽다' • 단어의 어원
문학 이론, 문학사		• 문학의 상호 텍스트적 특징 • 역설법
현대문학	•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 • 이상의 '날개' • 오정희의 '소음공해' • 이육사의 '절정' • 전혜린의 '먼 곳에의 그리움' • 채만식의 '논 이야기'	• 박완서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서정주의 시 '문둥이' • 김영랑의 시 '독을 차고' • 김소진의 소설 '목마른 뿌리' • 최승호의 시 '북어' • 김동명의 시 '파초'
고전문학	• '춘향전' • '어부사시사'의 문법적 설명 • '가시리' • 시조 네 수 • '규중칠우쟁론기' • 이제현의 '오관산' • '용비어천가'와 '한림별곡'의 특징	• '제망매가' 이해 • '상춘곡'+시조 • 김시습의 소설 '만복사저포기' • '박씨전'

하이클래스군무원